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나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홍콩 2019년 '반
송중(返送中)' 사회운동에 대한 한국,
중국, 홍콩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 <조선일보>, <한겨레>, 중국 <인민일보
(人民日報)>,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를 중심
으로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가양동조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홍콩 2019년 '반송중' 사회운동에 대한 한국, 중국, 홍콩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 <조선일보>, <한겨레>,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를 중심으로

이나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가양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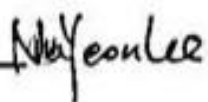
인 준 서

가양동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이 형민 

심사위원 김 창 숙 

심사위원 이 나 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반송중' 사회운동을 한국, 중국, 홍콩의 대표적 언론사가 보도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국 <인민일보>, 홍콩 <빈과일보> 등 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자주 이용되는 틀짓기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동일한 사건이라도 뉴스의 성향이나 특징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강조되어 보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연구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4개 언론사의 뉴스 프레임 차이, 둘째, 4개 언론사의 정보원 수, 셋째, 홍콩 언론사에서 나타난 동원 프레임의 특징 분석 등이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언론사의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법질서 옹호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민주 프레임', '외교 프레임', '경제 프레임', '자유 프레임', '도덕 프레임', '기타 프레임' 총 9개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한국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큰 차이가 없었고 두 언론사 모두 갈등 프레임과 도덕 프레임을 강조하였다. 중국 <인민일보>와 홍콩 <빈과일보>는 차이가 뚜렷하였다. 특히, <빈과일보>는 민주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제일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 <인민일보>는 법질서 옹호 프레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4개 언론사 사용한 정보원을 분석했다. 정보원은 '한국 정부', '중국 정부', '한국 사회단체/ 시민', '홍콩 사회단체/ 시민', '중국 경찰', '홍콩 경

찰', '한국 정치인', '중국 정치인', '홍콩 정치인', '미국 정치인', '한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홍콩 전문가', '홍콩 기업', '중국 언론사/ 기자', '한국 언론사/ 기자', '홍콩 언론사/ 기자', '기타' 총 18개로 구분되었다. 그 결과,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 정보원의 의존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과일보>는 홍콩 언론사와 홍콩 전문가, 홍콩 사회단체 등을 주 대상으로 취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취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사건을 취재한 것이라는 특성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는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할 때 정보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셋째, 동원 프레임의 특징은 <빈과일보>만 분석하였다. <조선일보>, <한겨레>, <인민일보>는 동원 프레임 보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자유 프레임', '인권 프레임', '차별 프레임', '갈등 프레임', '자율 프레임' 총 5개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빈과일보>는 '갈등 프레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권 프레임'과 '차별 프레임'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국, 중국, 홍콩 4개 언론사 간의 뉴스 프레임, 정보원, 논조, 동원 프레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언론사는 같은 사건이나 이슈에 보도할 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주제어: 뉴스 프레임, 사회운동, 정치적 성향, 정보원, 동원 프레임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1. 뉴스 프레임 이론	5
1) 뉴스 프레임의 유형과 형성 요인	6
2) 중국에서의 뉴스 프레임 선행연구	9
2. 사회운동 이론	13
1) 사회운동의 정의와 요소	14
2) 중국 사회운동의 대응방식과 변화	16
3. 사회운동의 집합행위 프레임(동원 프레임)	18
III. 연구문제와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2

2. 연구방법	23
1) 연구 대상과 및 자료수집	23
2) 뉴스 프레임 분석 항목	24
3) 정보원 분석 항목	36
4) 동원 프레임 항목	38
5) 코더 절차와 신뢰도	44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46
1) 한국, 중국, 홍콩 언론사의 뉴스 프레임 분석	46
2.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48
1) 한국, 중국, 홍콩 언론사의 정보원 분석	48
3.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52
1) 홍콩 언론사의 동원 프레임 분석	52

V. 결론

1. 연구결과	54
2. 연구의 시사점	57
3. 연구의 한계점	59

참고문헌	60
국내 문헌	60
외국 문헌	63
ABSTRACT	68
부록	72

표 목 차

<표1> 사회운동의 발전 역사	13
<표2> 한국, 중국, 홍콩 언론사의 뉴스 프레임 비교분석	47
<표3> 한국, 중국, 홍콩 언론사의 정보원 비교분석	50
<표5> 홍콩 언론사의 동원 프레임의 빈도	5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홍콩은 영국의 식민주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중국대륙(中國大陸)(이하 중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영국은 1997년 7월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지만, 그 후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¹⁾', '항인치항(港人治港)' 등의 정책에 따라 본래의 정치 제도, 법체계, 경제정책, 금융사무, 대외관계 등을 50년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과 민주 진영은 더 많은 자치권을 갖고자 매년 반환기념일에 사회운동을 일으켜왔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2003년 7월1일부터²⁾ 사회학 및 미디어학 영역에서 모두 관심을 끌게 되었다. 홍콩에서의 사회운동은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각 사회집단으로 확장되었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을 보도할 때, 언론매체들은 자신들의 가치나 관점에 따라 한 사건이나 이슈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며 이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프레임이라고 불렀다(Entman, 1993; Gamson, 1992).

즉, 매체는 사회 정보의 전달 중요한 행위자로서 사건이나 이슈가 등장하

1)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개의 제도(one country, two systems)'로 정의한다.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기본 국책으로 사회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체제가 한 국가 안에 공존하는 것이다(홍콩, 마카오, 곧 수복한 대만을 포함한다(歐陽奇, 2015)).

2) 2003년 7월 1일의 '7·1 시위 사건'은 중국의 8·9 민운(6·4 천안문 사건) 이래 대규모 시위 사건이라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홍콩 기본법 제23조의 입법 절차와 사스(SARS) 사태로 인해 홍콩이 불황을 겪어 시민들의 불안도 커졌다(周小, 2016).

면 자기의 관점을 지속해서 구성하고 다른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언론사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관점과 방향을 정의하거나, 전략적으로 특정 정보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Gitlin, 1980; Entman, 1993; 강내원, 2002; 이현우·이병관 2005; 임양준 2009)하며 이러한 과정을 프레임(frame)이라고 정의하였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경우, 수용자들이 매체를 통해 틀 지워진(framed)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정치적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를 경험하게 된다(Chaffee, Nass, & Yang 1990). 특히 국제적인 정치 이슈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은 56%가 찬성 태도를 보인 반면, 중국 국민은 절대 다수가 반대 태도를 보였다(양승현 (2016)). 그 이유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찬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9년 홍콩의 '반송중(返送中)' 사회운동에서 미디어는 대중의 참여를 동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캐리 램 특별 행정장관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반송중) 수정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3월15일부터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에서 두 차례 시위를 일으켰으며 6월9일 첫 번째 대규모 사회운동이 일어났다. 6월12일에는 시위 참여자와 경찰 간 폭력충돌 사태가 벌어졌고 시위 참여자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 수정 초안의 '완전철회', '폭동 확정 철회', '고소철회', '무분별한 경찰 권력 추궁', '캐리 램 행정장관 탄핵' 등 '5대 요구'를 주장하였다. 그런 가운데 시위 참여자들이 거의 매주 시위 활동을 벌이게 됨으로써 초기 평화 시위는 경찰과 시민의 충돌로 가열되고, 홍콩 각지로 운동이 확산하였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시위자들은 새로운 '3과(三罷)'(파업, 수업 거부, 시장파업) 행동을 시작하였고 갈등이 더욱

악화하고 수많은 사람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정보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사회운동이 일어났을 때, 언론이 어떤 시각에서 사건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언론은 특정 프레임을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특정 이슈를 대중의 인식 과정에서 재구성하는데, 프레임을 통한 사회적 현실의 재구성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프레임은 수용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동훈·김원용, 2012).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매체 간 특징에 따라 뉴스 프레임 차이성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중국, 홍콩은 정치적으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으며, 언론사의 보도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홍콩의 언론사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언론은 국가가 전권을 쥐고 관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정부나 국가 중심적인 프레임을 강조한다(Gitlin, 1980).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홍콩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회운동에 대해 한국, 중국, 홍콩의 대표적인 언론사의 기사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news frame)을 내용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언론에 비해 '일국양제'의 홍콩 언론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뉴스 프레임도 더 다양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보수언론과 진보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즉, 한국, 중국, 홍콩은 '반송중' 사회운동에 대한 뉴스 프레임, 정보원, 논조, 동원 프레임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언론사의 뉴스 프레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4개 언론사의 정보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빈과일보>보도한 동원 프레임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중국, 홍콩의 대표적인 4개 언론사 <조선일보>³⁾, <한겨레>⁴⁾, <인민일보(人民日報)>⁵⁾, <빈과일보(蘋果日報)>⁶⁾ 뉴스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뉴스 수집기간은 '반송중' 사건이 일어난 2019년 3월21일부터 사회운동이 집중된 2019년 11월25일까지이며 총 936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3) <조선일보>는 1920년 3월5일에 창간되었다.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 보수적인 태도를 대표하는 언론사 중 하나이고 기사 내용은 대체로 대기업의 입장이나 엘리트계급에 우월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다(김지혜, 2018). 설정은 서방 언론과 유사성을 갖는다.

4) <한겨레>는 1988년 5월15일 창간되었다.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 진보적인 태도를 대표하는 언론사 중 하나이고 주로 사회 빈민과 노동자의 시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김지혜, 2018).

5)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946년 5월5일에 창간되었다. 사회주의 중국의 제일 대표적인 언론사이다. 당의 정치관에 복종하고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孫楠, 2015).

6) <빈과일보(蘋果日報)>는 1995년 6월 창간되었다. 홍콩 '일국양제' 사회 배경에서 일반 독자에게 가장 잘 팔리는 중국어 언론사 중 하나이다. 정치 입장에서는 1997년 홍콩 주권을 교부한 후 대부분 홍콩 언론은 자체의 이익에 따라 자아심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약화하고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 및 견제파의 언론사를 크게 비평하여 현재 홍콩에서 유일하게 붉게 물들지 않은 매체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줄곧 중국의 봉쇄를 받았다 (鄧婕·程曉萱·蘇鈞机, 2014).

II. 이론적 배경

1. 뉴스 프레임 이론

언론은 사건이나 이슈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매개체보다는 세계를 재구성하는 이야기꾼(storyteller)이다(우형진, 2006; Entman, 1993; Gamson & Modigliani, 1989 Pan & Kosicki, 1993). 뉴스는 공급자가 가공해서 수용자들에게 핵심 이슈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용자들이 보는 뉴스가 반드시 실제 현실이 아닐 수 있다.

고프만(Goffman, 1974) 사회의 조직마다 고유한 의미부여 방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프레임(frame)”이라 명칭하였다(이준웅, 2000).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한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는 사실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뉴스 제작진이 일종의 틀을 가지고 뉴스를 제작하며, 그 틀의 특징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윤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임양준, 2010).

이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기틀린(Ginlin, 1980)은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이라고 정의했다(백경숙, 2002). 또한, “선택”과 “현저성”에 주목하여 엔트만(1993)은 프레임을 “인지된 현실의 특정 측면들을 선택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도덕적 평가와 처방을 내림으로써 선택된 측면들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속에서 보다 현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언론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특정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를 위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박태우, 2012). 이러

한 의미생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제는 뉴스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준웅(1997)이 “독자나 수용자 특정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이라고 주장한다. 텍스트에 의한 의미생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프레임이며, 프레임은 “정보의 어떤 항목은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항목은 생략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텍스트가 특정한 의미를 지니도록 이야기를 구성하는 틀”을 말하는 것이다(양정혜, 2001). 즉, 프레임이란 어떤 이슈를 선별하고 그 이슈의 특정한 측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강화함으로써 수용자들이 그 측면을 인지하고 그 측면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평가하도록 구성된 핵심 아이디어”로 정리할 수 있다(양문석, 2002).

이를 종합하면, 뉴스 프레임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제공하여 뉴스의 지배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뉴스 프레임의 유형과 형성 요인

뉴스 프레임 유형은 아이엔가(Iyengar, 1991)가 제시한 형식적 프레임과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의 내용적 프레임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 프레임은 사건을 전달하는 형식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뉴스 텍스트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내용적인 프레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멧코와 발켄버그(2000)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내용적 프레임을 “인간 흥미 프레임”,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갈등 프레임은 수용자의 주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조직기관 등의 충돌을 강조한다. 인간 흥미 프레임은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수용자의 외적 모습이나 감정적 차원이 현저하게 드러난 보도를 말한다.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모든 사건이나 문제 등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한다. 도덕성 프레임은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규범적 맥락을 강조한다. 책임 귀인 프레임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근본적 원인, 책무, 해결책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 진보 언론사는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에 대하여 갈등을 내세우고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는 프레임을 주로 다룬다(권지현·안차수, 2016). 반면, 상대적으로 친정부적이었던 보수 언론사는 진보 언론사의 프레임을 반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해도 언론사의 특성과 정파성에 따라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 프레임의 형식적, 내용적 차이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미디어의 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의 계층 모델(hierarchical model)⁷⁾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뉴스 기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개인적 차원”, “미디어 관행 차원”, “미디어 조직 차원”, “미디어 외적 차원”, “이데올로기” 등 5단

7)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 이론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의 계층 모델(hierarchical model)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뉴스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언론인 개인적 차원, 미디어 관행 차원, 미디어조직 차원, 미디어 외적 차원, 이데올로기 차원 등이다.

계로 구분하였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인 개인 차원은 언론인의 성격, 배경, 경험, 정치적 태도, 가치, 신념, 역할 등 기자의 내적 요인과 전문적 규범이 있다(Gans, 1979; Shoemaker & Reese, 1996; Tuchman, 1978). 이 중에서도 특히 전문가 태도는 보도 내용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미디어 관행 차원은 미디어 생산자, 조직과 수용자, 소비자 그리고 공급자, 정보원 이 세 주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형성된다. 예를 들면 언론인들은 서로가 보도한 뉴스의 가치를 자사 또는 타사의 언론인을 통해 검증받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미디어조직 차원은 미디어조직 자체와 제작 관행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인 가치와 성향 등을 말한다. 그중에서 경제적인 이윤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택하는 생존 방식은 주로 거대 권력에 순응하며 정치적 이익을 피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수용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미디어 외적 차원은 정보원, 광고주와 수용자, 미디어 시장, 기술 등 미디어조직 외부의 요인이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서민혜·반현, 2017). 즉, 특정 사건과 연관된 정보원은 미디어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기사의 다양성은 정보원의 다양성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이 중 정보원의 다양성은 숫자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송상근, 2016). 특히 정보원은 뉴스 보도의 논점과 내용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자는 취재할 때 사건의 이슈와 맥락을 잡기 위해서 정보원 선택을 중요하게 여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취재원이 많

을수록 다층적인 논의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취재원의 유형도 중요한데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한국 언론은 주로 정부나 정부 기관 관계자, 정치인, 전문가 등 주류 시각을 지닌 정보원을 주로 인용하는 관행을 보여 왔다(김영옥·이현승·장유진·이혜진, 2015a; 송상근, 2016).

이는, 어떤 정보원을 선택하고 어떤 보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보도 내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쟁점 사건이나 이슈에 있어 언론사마다 인용하는 정보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다(한동섭·유승현, 2008).

다섯째, 이데올로기 차원은 매스미디어를 구성하는 조직적, 직업적, 문화적 관행을 아우르는 거시적 개념으로, 사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델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받는 영향을 의미한다(서민혜·반현, 2017).

이를 종합해보면 뉴스는 다양한 차원과 그 차원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2 중국에서의 뉴스 프레임 선행연구

중국은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가 늦게 시작되었다. 판샤오링과 차오통저우(潘曉凌·喬同舟, 2005)는 이전 학자들의 관점을 기반으로 뉴스 프레임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뉴스 소재의 선택, 문제로 뉴스 출처와 정보 출처를 포함한다. 또 하나는 뉴스 소재의 구조로 “보도 내용”과 “보도 대상”, “보도 형식” 등 세 가지로 다시 정리된다. 이들은 아이엔가(Iyengar, 1996) 제시한 뉴스 보도 모델 이론을 “뉴스 프레임 기본 모델”로 발전시켰다.

자유주의 체제를 고수해온 홍콩과 대만 지역, 이 중에서 특히 대만에서는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일찍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도 장귀런(臧國仁, 1998)의 연구 성과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뉴스 미디어와 정보 출처 - 미디어 프레임과 진실 구성의 논술>이란 책에서 프레임 이론의 기본 개념 및 뉴스 매체와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많은 외국 학자들의 프레임과 관련된 관점을 귀납적으로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장귀런(臧國仁, 1998)의 해석을 정리하면 첫째, 각각의 프레임에 내재한 구성이 모두 대체로 유사하며 고층, 중층, 하층으로 구성된다. 고층은 사건 주제에 대해 의제설정 등이다. 중층은 사건의 역사, 귀인, 결과 등이다. 하층은 언어, 기호 등이다. 둘째, 프레임은 반드시 조직, 개인, 텍스트 프레임 등 세 가지 유형(미디어 관행 차원, 미디어 조직 차원, 미디어 개인 차원)을 포함한다. 즉 그는 '뉴스 프레임에 내재된 구조'를 뉴스 조직 프레임 측면에서 어떻게 뉴스의 프레임을 드러내는지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일상적 관습(routine),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직업 이데올로기(Professional Ideology)라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적(인지) 프레임 차원에서 저널리스트는 인지 구조의 영향을 받아 “lay theory⁸⁾” 차원에서 자신의 근무 목표로 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식구조의 제한을 받아 자신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텍스트 프레임 차원에서 뉴스 텍스트는 저널리스트가 기호 설계로 조합하여 제시하고 독자들이 개인의 기억 및 의미구축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얻은 산물이다.

이러한 기호 설계는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 줄거리 구조, 주제 구

8) 일반 사람이 사회 세계 현상에 대해 본질은 무엇인가? 사무는 어떻게 작동인가? 그리고 일상생활 각종 현상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있다. 이를 통해 관찰과 언론 보도, 개인 경험을 결합한 관점은 “lay theory”이론이다(Furnham A · Thompson L).

조 및 수사구조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장귀린(臧國仁, 1999)은 기틀린(Gitlin), 고프만(Goffman), 갠슨(Gamson) 등 학자들의 프레임 개념을 기반으로 “선택”과 “재구성”의 의미도 재정리했는데, 선택은 사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의 문제라면, 재구성은 무엇을 강조하는가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학자 장귀린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만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정치적 사건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구의의와 소록(邱宜儀·蘇麓, 2009)은 대만의 대표적인 언론사 <자유시보(自由時報)>, <연합신문(聯合報)>, <중국시보(中國時報)> 3개를 대상으로 대만 국민당 주석 마잉주(馬英九)의 정치 시기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3개 언론사는 ‘정치 유과 프레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과 윤리 등을 강조했다. ‘마잉주 상황’ ‘개인 특성’ ‘사회 상호작용’ 등 뉴스의 프레임이 많았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뉴스 프레임 실증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미지 프레임 연구이다. 국가 이미지, 정치 인물이나 유명한 인물, 소외 계층의 이미지 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징(韓璟, 2013)은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에 대상으로 중국의 레이펑(雷鋒) 이미지의 학습 활동 보도 프레임을 검토했다. 그 결과는 수집된 254건의 연구 자료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7.5%에 불과했고, 긍정적인 보도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다. 주류 언론들이 근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한 인물에 대해 보도했을 때 주류 이데올로기 고취는 종종 뉴스 보도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중국 사회의 전환기에 따라 뉴스 프레임 연구 대상이 다원화되었다. 즉 사회 집단행동 사건, 돌발성 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 등 연구 대상이 다원화 되었다. 예를 들어 후야용(侯亞榕, 2016)은 <난팡주말

(南方周末)>과 <뉴욕타임스(The NewYork Times)>를 대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이슈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두 언론사는 모두 정부 행위, 경제 발전, 민중 건강 프레임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난팡주말(南方周末)>은 중국의 뛰어난 통솔력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은 함께 이뤄질 수 있고, 현재의 미세먼지는 일시적인 문제라서 바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뉴욕타임스(The NewYork Times)>는 충돌 프레임을 사용하여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정부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한 결과이며 환경보호 과제와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예하이(叶海, 2012)는 <인민일보(人民日報)>와 <난팡주말(南方周末)>을 대상으로 중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회 집단행동 사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중국 서부지역 정부 이미지를 중시하며 사회 문제를 회피하고, 주류 언론사들이 정부 이미지를 보호하기 때문에 사회집단 행동 등 의제에 대해 대부분 비판하는 보도를 하고 있었다.

중국은 프레임 연구에서 정치, 정부, 선거, 국가 이미지 연구가 많은데, 국가 간의 사회운동 연구가 많지 않았다. 특히 홍콩의 반중 시위 등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에 대한 채택하게 되는 보도유형 및 전달방식, 전달 논조 등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중국 정치적 성향과 국가 이미지 등에 더욱 훌륭히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운동 이론

1960년대에 접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노예운동, 신좌파운동, 민족운동, 환경보호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운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세계적 현상에 대해 미국에서는 자원 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정치 과정이론(political process theory)으로 해석하려 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비록 많은 차원에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운동 과정에서 참여자의 이성적 선택, 정치적 환경 및 자원 등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趙鼎新, 2006, p.32).

미국 학자들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거시 사회학 차원에서 사회운동을 이해하려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대한 사회 전환이 시작되면서 산업사회 과도기에서 탈공업화로 전환되었으며 현대화에서 탈 현대화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사회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역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바로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변화이다.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민주주의의** 합법성 위기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탈현대의 신흥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이자 주류 문화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 조건에서 정체성을 찾고 인정받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趙鼎新, 2006, p.34).

<표 1> 사회운동의 발전 역사

미국의 실증주의	유럽의 역사 철학
----------	-----------

1970년대 전	붕괴 이론	마르크스주의 모형
1970년대 이후	자원 동원이론 정치과정이론	신 자원 동원이론
1990년대 지금까지	사회적 구성주의	

(趙鼎新, 2006, p.38).

80년대에 들어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의 시각은 마침내 교차점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 학자들은 미국 학자들의 실증연구, 미시적 연구 등을 흡수했으며 미국 학자들 역시 문화 및 의식 형태 등 거시적 요소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영향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趙鼎新, 2006, p.35).

2.1. 사회운동의 정의와 요소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사회관계의 변화, 정치 권력의 담당 주체의 변화,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권리의 분배 체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집합적인 행동이다(정정일, 2016). 또한, 사회운동의 성패는 정치 권력의 담당 주체의 변화 혹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늠할 수 있으며 그것의 성패는 대중의 조직화 능력, 운동세력의 능력과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의 건설 능력에 의해 좌우되었다(김동춘, 2012).

또한, 사회운동은 “공유된 집합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정치적, 문화적 갈등에 참여하는 다양한 개인, 집단, 조직 간에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대엽, 1996).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사회운동을 사회의 진화와 혁신 과정의 동력이라 여겼으며, 집단적 정치 항쟁을 거친 이후 사회의 통합 방식으로 정치함으로써 사회정치 질서가 제도화되고 민주화 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진다고 보았다(羅世宏, 1994).

이상과 같은 사회운동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발생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운동은 개인행동이 아니라 집합행동이다. 즉,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직해 행동하는 현상을 사회운동이라 부른다. 집합행동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조직을 갖춘 정치행위이다(양정혜, 2001). 보통 조직자는 핵심적 가치 혹은 의식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행동 지도의 원칙으로 삼는다. 그중에는 사회운동 참여자의 사회불공평 현상에 대한 견해를 포함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기도 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운동에 참여시킨다.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은 고도의 조직화를 갖추고 있지만,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집단을 이루었다.

둘째, 사회운동은 공통의 신념을 지닌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운동은 일종의 집단적인 자아 표현으로서, 통상적으로 집단은 공통의 가치관 혹은 공통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신진욱, 2004). 이러한 집단은 종종 통일된 옷을 입고 통일한 기치나 표어 및 구호를 사용하며 공통의 요구를 표현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은 자발성, 같은 신념,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적절한 항쟁 수단을 사용한다(김두식, 1998). 일반적으로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제도 외적인 집단항쟁 수단을 이용한다. 제도 외적인 항쟁 활동은 위법행위가 아니라 제도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식 제도 경로와 기타 형식

을 통해 항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신진욱, 2007).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급여인상 요구 등을 위한 정상적인 제소 절차는 통상적으로 노조를 통해 진행되지만, 근로자는 시위, 파업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드러낸다. 홍콩 '반송중' 운동에서 사람들이 행진이나 시위뿐만 아니라 데모 행진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항쟁 수단을 채용하는 것은 더욱 직접 정부의 주목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2. 중국 사회운동의 대응방식과 변화

사회운동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대 이전의 중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변혁이 이뤄진 집단적 운동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사회운동'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인 적이 없다. **자오딩신(趙鼎新, 2012)**은 “사회운동과 혁명은 모두 현대화가 도래함에 따라 출현한 사회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발전은 하나의 점진적 과정이며 시공간적 범위와 상관없이 대중이 폭력 또는 평화적 의견 개진과 집결 방식을 통해 확실한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모두 사회운동이라 인정해야 한다(袁銀傳·田亞, 2020).

근대 이전의 중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의 표현 방식은 매우 다양했는데, 주로 농민봉기나 노동자 운동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근대에는 사회운동의 폭발 빈도가 높고 참여 인원도 더욱 광범위하여 사회운동을 분류하는 기준도 세분화되었다(趙鼎新, 2012).

중국 역사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을 요약한다면, 주로 아래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정치 혁명 운동으로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종종 점진적

변혁 또는 피의 희생 등 폭력을 수반한 방식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변화 및 진보를 실현한 운동이다. 둘째는 사상문화 해방운동으로 문화적 영역에서 주로 전통적인 구습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롭고 선진적인 지식의 풍부한 문화적 내포를 받아들이고 사상적 해방을 실현했던 운동이다(王雪, 2015). 중국과 서양, 신구문화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구체적인 실현을 이뤄냈으며 특히 새로운 문화 운동을 대표로 비교적 광범위한 사상 해방운동을 형성하였다. 셋째, 사회건설 운동의 성격을 띠는 사건들도 있었다. 사회건설 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 운동으로, 양무운동을 시작으로 국가 정권 차원에서 이미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于建榮, 2008), 청말 신정(清末新政)을 거쳐 국민당 성립에 이른 후 국민당 10년 건설 시기에 국가와 지방 권력기관은 이미 사회건설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점차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회운동의 조류를 형성하였다. 넷째, 정당 분쟁으로서의 사회운동도 있다(高艷芳, 2015). 정당은 근대의 산물로서 서로 다른 정치적 요구 및 계급적 입장 놓인 집단이다. 참정 행위 및 강령 발표 등을 통해 사회의 변천 및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일부 혹은 대부분 이익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페리스 와 셀던(Perry, & Selden, 2000)는 중국 혁명 연구 및 사회운동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모두 농민 봉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국의 사회운동은 역사적 배경과 민중의 항쟁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상숙, 2017). 하지만, 사회운동에 중국학자의 연구 성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은 사회운동에 대해 규범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일당제라는 배경에서 민주화 운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학자 위젠룽(于建榮, 2008)은 사회운동 연구는 주로 아래 3가지 시각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자원적 시각이다. 이 시각은 사회에 대한 항쟁자가 사회운동 과정에서 운용하는 레퍼토리와 책략의 탐구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농민들의 항쟁 행동은 법에 따

라 항쟁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농민 사회운동은 “농민 집단” “합법적 인권”이나 “시민 인권”의 선양하고 설립하는 정치 운동을 강조한다.

둘째, 구조적 시각이다. 이 시각은 거시적 사회구조에서 출발해 전통 및 항쟁 참여자와 피항쟁자간의 동태적 연구 분석의 설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회 구조'적 각도에서 중국 사회항쟁의 필요 속성을 이해한다. 인리민((尹利民, 2006; 楊國斌, 2009)은 새로운 이해 프레임 책략 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전환 시기에 전략적 균형은 국가와 공공 사이의 가능성 변화로 인한 불균형적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정치적 합법성을 얻는데 필요한 수단이라 판단했다.

셋째, 감정적 시각이다. 감정적 시각의 연구에서 가장 널리 운용된 차원의 구분은 상대적 박탈 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그것은 항쟁 행동의 원인을 정서적 분노 혹은 자각적인 윤리의식의 탓으로 돌린다. 창이잉저우(蔡盈洲, 2014)는 헛소문 격화, 탈역(脫域), 공감 등 3가지 메커니즘 연구에서 출발해 헛소문의 정서에 대한 미혹감을 지니고 있어 집단적 정서를 충분히 자극해 집단 참여자가 이성을 잃게 만든다고 여겼다. 행동은 온전히 정서적 협박을 받았을 때 집단적 사건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하였다.

사회운동 연구는 중국학자들의 관심을 아직 받지 못했으며 학자들은 단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운동 연구를 진행하고 뉴스 전파 영역의 각도에서 명확한 연구와 운용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운동의 집합행위 프레임(동원 프레임)

사회운동이론에 따르면 사회운동은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의미를 생산

하고 협상하는 과정이다(Melucci, 1995). 이러한 의미화 과정은 사회운동 조직과 개별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정치 엘리트나 매스미디어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주체들과의 사이에서도 전개된다(Klandermans, 1992). 갠슨과 모딜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는 사회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특히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미디어가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한 이념적 패키지(ideological package), 즉 프레임을 구축함으로써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디어 영역 내에서의 프레임 경합에 참여하며 프레임 패키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운동은 중요한 프레임 후원자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Carragee & Roefs, 2004).

집합행위 프레임이란, 사회적 조건의 심각성, 부당성, 비도덕성을 드러내고 누가 혹은 무엇이 그 원인인지를 밝히는 한편 어떤 교정의 행위가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이다(Snow & Benford, 1992). 이는 사회운동의 이념적이고 해석적인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Snow, 2007), 집합적 행위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더 구체적으로 집합행위 프레임은 사회운동의 여러 활동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는 행위지향적인(action-oriented) 신념들이며, 사회운동의 합법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지지에 대한 획득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내포하는 것이다(Benford & Snow, 2000).

프레임은 발생하는 사건들에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며, 경험을 체계화하고, 행위를 지도하는데 공헌한다. 특히, 집단행동 프레임은 외부 세계(world out there)의 양상에 대한 요약과 응축을 통해 이와 같은 해석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집단행동 프레임에 따라 잠재적 지지자와 구성원을 동원하며, 방관자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자를 해산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집단행동 프레임은 사회운동 조직의 행동과 운동을 고취하고 정당화하는 신념들과 의미들의 행위 기반적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운동 연구는 민주체제 내 혹은 민주절차의 일부인 사회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특권 확대를 통해 모종의 권리 혹은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거나 더욱 민주적인 통치패턴으로 전체주의적 정권을 대체하고자 한다.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운동은 프레임을 배치하고 "해석자료(schemata of interpretation)"로 정의한다(劉春榮, 2014). 그것은 통일된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집단과 관련된 공통 문제를 인식하며 '더욱 훌륭한' 사회적 비전을 그려나가거나 잠재 참여자를 독려하여 사업에 참여시키고 혹은 그들을 동원하여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프레임들은 핵심 프레임 작업(Core Framing Tasks)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핵심 프레임 작업은 그들의 '서사 충성도'에 달려있다. 핵심 프레임 작업(Core Framing Tasks)은 일정한 시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운동의 공통된 주제로서 한 시기의 주요한 이데올로기 사조를 구현한다. 미국 민권운동의 저명한 연구에서 맥아담(McAdam, 1982)은 민권운동은 사실상 일종 항쟁의 핵심 프레임을 창조하였으며 이러한 핵심 프레임이 강조하는 '공민권리' 의식은 1960, 1970년대의 여성해방 운동, 동성애 운동 및 기타 소수민족 동원의 문화적 도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마틴 루터 킹은 운동의 리더로서 그 권력은 문화구조의 산물이며 그것은 부분적으로 남부 흑인의 침례교 전통(black Baptist tradition)에서 나왔다.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 정치문화의 모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후 각종 동원은 대부분 이러한 민권 관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맥아담(McAdam, 1995)은 더 나아가 한 사회운동 주기 내에서 메인 프레임은 확장 및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야 하며 가장 먼저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한 운동조직자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기타 관련 조건에는 가장 먼저 프레

임을 만들어낸 운동조직이 후발주자와 효과적인 정보 소통 및 조직 목표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당연하게도 매체에 의해 실현되지만, 운동조직자와 운동조직의 창시자 간의 직접적인 개인적 연관성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홍콩의 '반송중' 사회운동의 동원 프레임과 참여자, 잠재 참여자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언론사를 통해 어떤 동원 프레임이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언론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때, 국가나 언론사에 따라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한국, 중국, 홍콩 언론의 보도에서 뉴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 정보원, 동원 프레임 등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입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홍콩 '반송중' 사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고, 정보원 수를 분석하고, 동원 프레임의 보도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에 대한 4개 언론사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할 때 정보원이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 간 정보원 특성을 알아보고 어떠한 차이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2: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에 대한 4개 언론사의 정보원 특성이 무엇인가?

사회운동을 보도하는 동원 프레임은 운동의 결과와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원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내지는 불참여의 선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동원 프레임은 <빈과일보>만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동원 프레임 연구는 <빈과일보>에 대한 분석만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3: 홍콩의 <빈과일보>가 보도한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에 대한 동원 프레임 특성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과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약 1년 동안)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에 대한 보도를 다루었다. 기사 검색, 수집 및 자료 분석 기간은 2019년 3월 21일부터 2019년 11월25일까지, 약 8개월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 이슈에 대해 언론사는 수용자에게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현상을 어떻게 현실 재구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국의 <인민일보>, 홍콩의 <빈과일보>의 제일 대표적인 언론사를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홍콩 시위'를 키워드로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을 진행했다. 검색을 통해 <조선일보> 60건, <한겨레> 155건, <인민일보> 110건, <빈과일보> 611건, 총 936건을 수집하였으며, 뉴스 프레임 유목

및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2.2 보도 프레임 분석 항목

내용적 프레임은 각 기사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핵심 의미와 가장 부합되는 단일 프레임을 측정했다(간승훈, 2014). 세멧코와 발켄버그(2000)가 제시한 “내용적 프레임”은 “인간 흥미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s)”, “갈등 프레임 (Conflict frames)”,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s)”, “경제적 결과 프레임(Economic consequences frames)”, “책임 프레임(Responsibility frames)”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멧코와 발켄버그(2000)는 선정주의적(sensationalist) 언론은 인간 흥미 프레임을 더 자주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진지한(serious) 언론은 갈등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법질서 옹호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민주적 프레임', '외교 프레임', '경제 프레임', '자유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기타 프레임' 등 9개로 정의하였다. 유목은 다음과 같다. 개별 프레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측정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법질서 옹호 프레임

홍콩 사회운동 사건을 둘러싸고 등장한 시위자, 경찰 시민들 사회질서에 벗어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비이성적 시위 행위, 시민의 폭력시위에 의한 경찰 부상 피해, 법치 훼손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비이성적 시위 행위

“8월 3일 밤, 수 명의 검은 색 옷과 복면 차림의 시위자들이 홍콩 켄사쥐(尖沙咀)에서 건물 앞에 걸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떼어내 바다에 내던졌다.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및 홍콩 특별행정구역의 <국기 국장 조례>를 엄격히 위반한 행위이며 공공연하게 국가 및 민족의 존엄을 해치고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처참히 짓밟은 행위로서 홍콩 교포를 포함해 중국 전체 인민의 감정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강한 분노의 뜻을 전하며 홍콩 특별행정구역 경찰 사법기관의 과감하고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통해 하루빨리 위법행위를 일으킨 범법자들의 법에 따른 처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인민일보> 2019년 8월 5일 자)

나. 시민의 폭력시위에 의한 경찰 부상 피해

“홍콩 행정 장관은 지난 1주일 동안 철도 정체, 공항 마비, 해 터널 차단, 각 구청 경찰서 공격 등 대규모 행위가 홍콩 전역에서 만연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시위자들이 휘발유탄, 연막탄 등을 사용해서 경찰들이 부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홍콩의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 시민들이 외출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인민일보> 2019년 8월 14일 자)

다. 법치 훼손

“지난 2일 홍콩 정부는 지난 이틀간 시위자들이 불법 집결하면서 불법 폭력 행위가 확산했고 일국양제의 정책과 홍콩의 법치에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찰법 집행을 전폭 지지하였다. 행정 장관은 폭동이 4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드시 행동을 취해서 이번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복면 금지 규례》를 제정한 목적은 경찰의 협조이다.” (<인민일보> 2019년 10월 8일자)

<2> 갈등 프레임

홍콩 사회운동 사건에서 홍콩 내부의 친중-범민주 갈등, 시민의 정부 불신, 시위대-경찰 충돌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홍콩 내부의 친중-범민주 갈등

“홍콩의 범민주파 의원들과 친중 진영 의원들이 11일 범죄인 인도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고함을 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친중파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범민주파인 제임스 토 의원을 밀어내고 친중파인 에이브러햄 섹 의원을 법안심사위원장으로 교체한 것이 충돌의 발단이 됐다. 범민주파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사회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마이크를 잡고 친중파 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으로

가득 찬 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면서 범민주파 계리 판 의원이 실신해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한겨레> 2019년 5월 12일 자)

나. 시민의 정부 불신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을 방문 중인 테레사 청 장관이 이날 저녁(현지 시각)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팔에 상처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청 장관은 영국의 공인중재인협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한 건물로 들어가려다 홍콩 정부의 시위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자 30여 명에게 에워싸였다…(중략)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홍콩 정부의 고위 각료와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 장관은 캐리 램 행정장관과 더불어 이번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한 송환법안 입법 추진을 주도했던 내각의 핵심 인물이다.” (<한겨레> 2019년 11월 15일 자)

다. 시위대-경찰 충돌

“14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주최 측 추산 11만 5000명(경찰 추산 2만 8000명)이 모인 이날 시위는 초반에는 평화롭게 진행되다가, 저녁이 되자 물병과 우산 등을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에 맞서 경찰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 연합 ‘민간 인권 전선’은

오는 21 일에도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조선일보> 2019년 7월 16일 자)

<3> 인간 흥미 프레임

홍콩 사건에서 수용자의 초점을 쉽게 끌 수 있다. 단순 현상과 사실을 소개하거나 사람들의 홍콩 사회운동 사건에 대한 분노와 연민의 감정이입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단순 현상과 사실 소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22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일어났다. 시진핑(習近平) 정권 출범 이후 홍콩 자치에 대한 간섭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현실에 홍콩 시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중략) 740만 홍콩 인구 7명당 1명꼴로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1997년 이후 최대, 홍콩 전체 역사상으로도 150만 명이 텐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던 1989년 이후 최대라고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조선일보> 2019년 6월 11일 자)

나. 분노와 연민의 감정이입

“지금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이 통과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시위를 연 사람들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진압당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억을 가진 한국 시민들이 홍콩 시민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좋겠다...(중략) 지난 12일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이 홍콩 경찰에 폭력적으로 제압당하는 장면을 보고 1980년 광주의 모습을 떠올린 이들도 있었다. 임완산은 시위대 앞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다. 그런 친구들에게 경찰은 고무탄 총을 쏘았다. 이런 모습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부끄럽고 마음 아팠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9년 6월 15일 자)

<4> 민주적인 프레임

홍콩 사회운동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이나 시위자가 정부에 대해 민주 반환 요구 등에 초점을 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양성, 다원주의 강조, 수평적 관계, 민주 진영 간 국제적 연대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다양성, 다원주의 강조

“홍콩은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다원 사회이라서 홍콩 시민들 공공권익 보호라는 정치적 소양을 결정하였다. 민주사회는 전제 독재에 핍박과 위협을 허용하지 않아서 홍콩 시민은 싸우지도 않고, 항쟁하지도 않으면 야오문전(姚文田) 계명해(桂明海) 등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들은 홍콩의 사법 독립과 사회의 공익을 수호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권익도 보호하는 것이다.” (〈빈과일보〉 2019년 10월 31일 자)

나. 수평적 관계

“<7.21 홍콩인 선언>에 따르면 6월 초부터 현재까지 홍콩 시민들이 수백만 명의 평화, 이성, 비폭력 등의 방법으로 정부에 ‘반송중’ 요구를 전달했는데, 정부의 무관심만 받았다. 정부는 경찰관을 방패막이로 삼고 과도 무력으로 시위대에게 대응하고 시민을 다치게 하고, 평등 대화도 할 수 없다. 시민들이 모든 방법을 통해 정부에 우리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빈과일보> 2019년 9월 28일 자)

다. 민주 진영 간 국제적 연대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허용 법안을 둘러싼 홍콩 시위 사태가 “자유 대(對)”와 “민주 대 전체주의”의 국제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시위대를 “폭도”로 몰며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서구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리더들이 일제히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 2019년 6월 14일 자)

<5> 외교 프레임

홍콩 사회운동 사건에서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 내정 간섭 반대, 중국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한 미국의 경고, 미국의 홍콩 인권법 통과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중국 내정 간섭 반대

“미국 국회 참의원 심의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연하게 홍콩 사무에 개입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중국의 발전 역제를 기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외 인사들의 강력한 비난이 이어졌다…(중략) 미국과 중국 평화통일촉진회(美西中國和平統一促進會) 회장 우요우이(吳有義)는 미국 참의원이 중미 관계를 무시했으며 중국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홍콩 사무에 대한 무책임한 언행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법안은 홍콩의 폭력 테러 분자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해외 화교 집단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2019년 11월 21일 자)

나. 중국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한 미국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홍콩 사태와 관련, “인도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일대일 회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중략)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국무부가 중국의 홍콩 시위 무력진압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 “면에서” 모든 쪽이 폭력을 자제하기를 촉구”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2019년 8월 15일 자)

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 통과

“홍콩 민주화 시위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19일 “홍콩 인권·민주 주의법(홍콩 인권)과 “홍콩 보

호법”을 통과시켰다…(중략) 홍콩 인권법은 “2020년까지 행정장관 및 입법 의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 마련을 지지한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홍콩이 누려온 “고도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한 뒤 홍콩에 부여해온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중단할지 결정한다는 내용과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은 미국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담았다…(중략) 홍콩은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이양된 뒤 2047년까지 50년간 민주주의 경제를 보장받고 중국으로부터 반자치를 누리는 특별행정 지역으로, 관세·투자·무역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한겨레> 2019년 11월 21일 자)

<6> 경제 프레임

홍콩 사회운동 사건 때문에 유무형의 이득을 얻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홍콩 경제 하락, 기업 파산, 기업 파산 및 손실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홍콩 경제 하락

“9일 홍콩 상공회의소, 관광, 소매, 금융, 은행 등 주요 경제 분야 대표 33분은 같이 홍콩과 전 홍콩 각계가 어떻게 공동으로 노하고 경제난국을 빨리 벗어나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행정 정권은 중미무역 갈등이 고조된 경우에서 정치적 분규와 경제 반전에 대한 우려가 재계에서 커지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것이다. 홍콩 경제

가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는 중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민일보> 2019년 8월 10일 자)

나. 기업 파산

“홍콩 특구의 대표 지도자는 지난 주말이 시위자가 중소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파괴와 습격을 하였다. 특히 시위자들 폭력적인 파괴행위가 홍콩의 소매, 음식점, 관광호텔업 등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약 60만 명의 말단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구호비가 준다.” (<인민일보> 2019년 10월 9일 자)

다. 기업 파산 및 손실

“7개 홍콩 항공 시스템노조는 13일 홍콩 여러 신문에 12일 홍콩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무허가 시위가 다른 공항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홍콩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혀 항공사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공항에서의 불법 시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다.” (<인민일보> 2019년 8월 14일 자)

<7> 자유 프레임

자유는 홍콩 시민 인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집회 자유, 정치 자유, 언론 자유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집회 자유

“1월 1일 신청하는 시위가 통과되지 않아서 홍콩의 여러 단체가 규탄하고, 시민들의 평화 집회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권 관찰과 홍콩 인권 감시자는 경찰에 대한 집회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반해서 비난하였다. 집회 기본법은 홍콩 시민의 부여되는 권리이다. 그래서 홍콩 정부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빈과일보> 2019년 11월 3일 자)

나. 정치 자유

“정부는 “행정장관 직선제”라는 홍콩 반환 당시 약속을 뒤엎고 공산당이 낙점한 사람들만 후보로 인정하겠다는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분노는 79일간 도심 점거 시위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중략) 우산 혁명이 좌절된 이후 홍콩의 정치·언론·사법 등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베이징의 개입은 갈수록 노골화됐다. 친중파가 장악한 입법회는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민주파 의원들의 의원직을 온갖 핑계로 박탈했다.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고도의 자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은 급속하게 와해하였다.” (<조선일보> 2019년 9월 7일 자)

다. 언론 자유

“젊은 시위대 무리 사이에서 고령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회에서 선두에 나서지는 않고 평화롭게 시위대

를 따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에어컨 수리공이라고 밝힌 한 시민(60)은 이렇게 요구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홍콩에서 열린 시위에도 참여했다...(중략)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 일에 간섭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선제 약속을 이행하라.” (<한겨레> 2019년 8월 31일 자)

<8> 도덕성 프레임

사회가 규정하는 도덕적이거나 규범적인 가치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면 안된다는 것, 학생은 수업에 거부하면 안된다는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시민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면 안됨

“지난 11일에 홍콩 많은 지역에 발생한 불법 집회 중, 폭력시위가 공공시설을 파괴하며, 도로를 막히게 한다. 심지어 폭력시위자가 유지 폭탄을 던지면서 경찰 인원 중에 몇 명 다친다. 홍콩 행정장관이 12일 새벽에 이에 대한 강력히 규탄한다.” (<인민일보> 2019년 8월 13일 자)

나. 학생은 수업에 거부하면 안됨

“홍콩 각 연령대 학생이 학교나 인터넷에서 경찰에게 증오하는 사상을 붙여넣는다. 대규모 수업 거부하는 행동을 동원한다. 이런 거부하는 아이들이, 특히 경찰의 아이들이, 현실

생활이나, 인터넷에서, 악플, 위협, 괴롭히는 것을 당한다. 시민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한다. 국제사회가 조직자나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규탄 한다”고 호소한다. 증오와 폭력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평화와 안전한 도시에 메울 수 없는 상처와 틈을 줄 뿐이다.” (인민일보 2019년 9월 12일 자)

<9> 기타 프레임

위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프레임이다.

2.3 정보원 항목

정보원은 뉴스 구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어떤 정보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보도 내용도 바뀔 수 있으며 사회적 쟁점 사건이나 이슈에 있어 언론사마다 인용하는 정보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다(한동섭·유승현, 2008). 예컨대 친중 언론은 친중 사람들을 주로 인용해 보도하며, 반대로 반중 언론은 반중 사람들을 많이 인용하여 보도하고, 중립적 언론은 중립적 사람이나 친중 또는 반중 사람들을 적절히 조합해 정보원으로 인용한다. 이처럼 정보원의 이용과 선택은 미디어가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틀 짓기를 하는 기사의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설진아·남궁강, 2007).

이 연구는 보도 내용에 따라 정보원을 분류했다. 기사에 정보원이 2명 이상 나오면 2명 중에 큰 정보가 제공된 정보원을 코딩했다. 정보원은 다음과 18개 항목으로 같이 분류했다.

- ① 한국 정부: 한국 청와대, 한국 정부 등.
- ② 중국 정부: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 외교부 등.
- ③ 한국 사회단체/ 시민: 시민(지지하거나 반대), 학생(지지하거나 반대) 등.
- ④ 홍콩 사회단체/ 시민: 시민(지지하거나 반대), 학생(지지하거나 반대), 참여 단체 등.
- ⑤ 중국 경찰: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 무장 경찰부대 등.
- ⑥ 홍콩 경찰: 홍콩 경찰, 홍콩 경무처 등.
- ⑦ 한국 정치인: 여당과 야당 관련된 정치인 등.
- ⑧ 중국 정치인: 중국 대표 시진핑(習近平) 주석, 국무원 총리 리코창(李克强) 등.
- ⑨ 홍콩 정치인: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 보안국장 이가초(李家超)(중국 정치 지지자) 등.
- ⑩ 미국 정치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 ⑪ 한국 전문가: 대학교수(친중, 반중), 의사, 기타 전문가 등.
- ⑫ 미국 전문가: 대학교수(친중, 반중), 의사, 기타 전문가 등.
- ⑬ 홍콩 전문가: 대학교수(지지, 반대), 의사, 기타 전문가 등.
- ⑭ 홍콩 기업: 홍콩 총상회,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 등.
- ⑮ 중국 언론사/ 기자: 중국 입장을 대표한 언론사(<인민일보>), 기자 등.
- ⑯ 한국 언론사/ 기자: 중국 입장을 대표한 언론사(<인민일보>), 기자 등.
- ⑰ 홍콩 언론사/ 기자: 중국 정부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홍콩 언론사, 기자 등.
- ⑱ 기타 정보원: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원. 예를 들어 변호사 등.

2.4 집합행위-동원 프레임 항목

사회운동의 집합행위 프레임이 잠재적 지지자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운동 프레임이 목표 집단의 가치나 경험에 얼마나 적절하게 조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Coles, 1998; Snow et al. , 1986).

집합행위 프레임은 미디어 전파를 통해 잠재 참여자를 독려하여 사업에 참여시키고 혹은 그들을 동원하여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동원 프레임이 있는가?’를 ‘있다’, ‘없다’고 코딩한 뒤 동원 프레임이 있는 기사에 대해 동원 프레임의 종류를 아래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1> 민주/ 자유 프레임

홍콩 사회운동 사건에서 민주와 자유 권리를 호소하는 등 내용을 강조하고 동원하는 프레임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은 민주권리 자율 권리와 국민 안전 보장, 홍콩 자유 쟁취 거리 항쟁, 언론 자유의 중요성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권리 자율 권리와 국민 안전 보장

“입법원은 홍콩 시민들이 민주와 자유를 지키는 결심을 지지한다. 오늘 여야 당파 구별 없이 고통 성명을 밝힌다. 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여 독단적으로 (홍콩 국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

다’ ‘오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치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 조례’에 따라 국가 안정을 고려하여 정치로 인해 안전과 자유를 긴급 위협을 당한 홍콩 시민에게 필요한 협조를 도와 달라고 한다.” (<빈과일보> 2019 년 10 월 12 일 자)

나. 홍콩 자유 쟁취 거리 항쟁

“홍콩 ‘반송중’ 반대 시위의 주역으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조슈아 왕은 11 일(현지 시간) “홍콩 시민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조슈아 왕은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민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국제도시로 인정받는 홍콩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방어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 시민은 경찰의 잔혹성이 커지면서 더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다”라면서 우리는 홍콩이 경찰국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략) 특히 그는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했지만, 우리는 이를 시간을 벌고 10 월 중국 국경절에 앞서 평화의 환상을 그리려는 전술의 일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19 년 9 월 11 일 자)

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

“<국안법>은 일국양제의 종언을 뜻한다. 하지만 홍콩 시민의 자유뿐 아니라 누구나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면도

홍콩 국안법을 위반할 수 있다...(중략) 최근 국안법을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app을 개발하였다. 이는 홍콩의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안법도 홍보한다. 개발자는 수백만의 홍콩 시민들이 작년부터 거리로 나와 홍콩의 민주와 자치를 지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콩은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지난 6월 30일 국안법 실시 후에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아간다.” (<빈과일보> 2019년 9월 13일 자)

<2> 인권 프레임

홍콩 사회운동 사건에서는 인권 문제에서 미국은 홍콩 인권법 보호와 인권 반환과 기본 권력 보장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미국은 홍콩 인권법 보호

“미국 국회는 내일이 <홍콩 인권과 민주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중환 공원에서 13만 시민이 <홍콩 인권과 민주 법안> 시작하기 전에 동원 활동을 개최하고, 참여자들이 미국 국기를 흔들며 다시 휴대전화 램프에 “USA”라는 글자가 써서 동원 활동 내용은 <홍콩 인권과 민주 법안>이 정부에 대항하는 홍콩 시민들의 무기가 될 것이며,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가 주요 목표이다.” (<빈과일보> 2019년 10월 14일 자)

나. 인권 반환과 기본 권력 보장

“홍콩 독립 대표인 사이먼 씨는 홍콩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 홍콩 시민의 인권 보장에 더 중요하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홍콩을 지키는 핵심가치에 대해 홍콩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인권 존중도 중요하다. 이 의견서는 홍콩에 국제인권조례의 현지 입법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빈과일보> 2019년 10월 9일 자)

<3> 홍콩 차별 프레임

집단이나 정치에 대해 불공평하거나 비합리적인 부정적 태도 등 내용을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정치, 문화 등이 집단의 비난을 받았을 때, 집단 참여자의 같이 단결하여 항쟁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국양제'의 기본 정책 약화를 걱정, 휴교와 파업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일국양제'는 홍콩 기본 정책 약화를 걱정

“정부는 어제 첫 커뮤니티 대회를 개최했는데 1 시민은 홍콩의 선거와 정치 개혁이 5대 소구 중의 하나로서 시민 인권 권력은 기본법이라서 다시 설명한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일국양제 문제 때문에 선거도 어려워져 비난을 하였다. 그리고 행정장관의 능력도 의문하였다.” (<빈과일보> 2019년 9월 26일 자)

나. 휴교와 파업

“홍콩 중학생들이 월요일 개학 때 방독면을 쓰고 학교에 다녔다. 학부생들이 수업 거부해서 민주 구호를 끊임없이 고

창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름 내내 거리, 정부 청사 밖, 공항에서 자기 행동을 통해 정부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 항의 행동은 경찰의 감시를 당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면 이 시위 행동은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빈과일보> 2019년 10월 6일 자)

<4> 갈등 프레임

중국 정부와 홍콩 민주진영, 경찰, 시위자 간 발생한 갈등을 통해 시민과 잠재적인 참여자들이 동원하는 프레임이다. 시민과 기자 간 갈등, 다친 시민들이 경찰의 사과 요구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시민과 기자 간 갈등

“홍콩 경찰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홍콩 3만 명 경찰이 폭동이 위협을 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경찰이 국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정치적 탄압 외에도 부녀자의 노약자에 대한 공격 죄를 범한다. 그들은 홍콩 사회의 법치를 철저히 파괴하고, 기본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빈과일보> 2019년 11월 4일 자)

나. 다친 시민들이 경찰의 사과 요구

“홍콩 경찰의 행동 수단은 또다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35만 명 시민들이 시위과정에서 경찰은 대규모적인 무력진압하고 보통 시민이 많이 다쳤다. 그리고 현장의 청소할 때 홍콩 최대의 시슬람교 사원에 푸른색 액체를 포차로 분사해

서 종교 모독한다. 시민들은 경찰과 정부의 사과, 경찰에게 무력행위를 금지, 시위 행동은 계속 진행 등에 대해 요구하였다.” (<빈과일보> 2019년 10월 21일 자)

<5> 자율 프레임

일국양제에 자주권을 더 갖고 싶어서 동원하는 프레임이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와 행정장관 퇴진지지, 정치와 법치 자율과 홍콩 인도 법이 철회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와 행정장관 퇴진지지

“홍콩 특별 행정장관 캐리 램의 <범죄인 인도 법안> 승인 이후 행정장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캐리 램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 수정 강행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만을 위한 서비스로 홍콩인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매도당하고 있으며 전날 공무원 간부들 역시 거리로 나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빈과일보> 2019년 4월 29일 자)

나. 정치와 법치 자율

“2017년 7월 1일은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지 20년이 되는 날로, 행정장관은 이날 취임하였다. 행정장관은 베이징에서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뽑았다. 근데 베이징은 홍콩 민주화에 대한 약속을 거둬 저버리고, 언론을 제한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였다...(중략) 1997년

이래 수십만 홍콩 사람들이 교육과 정치 권력이 위협받는 것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신임 특수는 홍콩 언론 자유와 사법과 독립은 중요한 것이 인식해야 한다.” (<빈과일보> 2019년 7월 20일 자)

다. 정부에 인도 법이 철회

“홍콩 반환 22주년 때 홍콩 시위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 ‘인도 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하였다. 올해 7월 1일, 민간인권 전선이 주최하는 시위 활동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시위 활동 시작하기 전에 많은 시위자가 이미 홍콩 입법회 청사에 몰려들어, 쇠막대기 등으로 유리문을 깨서 경찰과 대응했다. 시위자들이 홍콩 독립과 홍콩 자유 등 구호를 크게 외쳤다.” (<빈과일보> 2019년 9월 13일 자)

2.6 코딩 절차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데이터 코딩은 대학원 석사과정생 1명과 석사 1명이 함께 진행했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코딩 데이터를 만들고 연구 목적과 측정 항목에 대해 다른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의 알파(Alpha) 신뢰계수를 이용하였다. 코더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전체 분석대상 뉴스의 텍스트 중 10%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10건, <한겨레> 10건, <빈과일보> 60건, <인민일보> 20건을 추출하여 분석자 2명이 각자 코딩하고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측정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크리펜도르프 알파가 0.8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신뢰도 수치는 다음과 같다.

9개 프레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범질서 프레임 0.85, 갈등 프레임 0.82, 인간 프레임 0.83, 민주 프레임 0.89, 외교 프레임 0.81, 경제 프레임 0.85, 자유 프레임 0.87, 도덕 프레임 0.85, 기타 프레임 1.00로 나타났다. 논조에서도 신뢰도는 0.9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났다. 정보원의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 0.90, 중국 정부 1.00, 한국 사회단체/시민 0.83, 홍콩 사회단체/시민 0.83, 중국 경찰 1.00, 홍콩 경찰 0.81, 한국 정치인 1.00, 중국 정치인 0.80, 홍콩 정치인 0.84, 미국 정치인 0.81, 한국 전문가 0.84, 미국 전문가 0.83, 홍콩 전문가 0.82, 홍콩 기업 0.84, 중국 언론사/기자 1.00, 한국 언론사/기자 0.82, 홍콩 언론사/기자 0.86, 기타 정보원 0.81로 나타났다. 동원 프레임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자유 프레임 0.86, 인권 프레임 0.89, 차별 프레임 0.88, 갈등 프레임 0.90, 자율 프레임 0.90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1>은 2019년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에 대한 한국, 중국, 홍콩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의 내용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래 <표 2>에서 <조선일보>, <한겨레>, <인민일보>, <빈과일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7.684$, $df=9$, $p<.000$).

각 언론사 뉴스 프레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갈등 프레임이 23건(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 프레임이 12건(19.2%)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민주 프레임이 8건(13.3%), 법질서 옹호 프레임이 7건(10.2%), 자유 프레임이 4건(6.7%), 인간 흥미 프레임이 2건(3.5%), 외교 프레임이 2건(3.5%), 경제 프레임이 2건(3.5%)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갈등 프레임이 66건(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주 프레임 20건(12.9%), 법질서 옹호 프레임이 18건(11.6%), 외교 프레임이 17건(11%), 도덕 프레임이 15건(8.7%), 인간 흥미 프레임이 8건(5.9%), 자유 프레임이 7건(4.6%), 경제 프레임이 4건(2.7%) 순으로 나타났다.

<빈과일보> 경우는 민주 프레임이 194건(31.8%)로 가장 높았으며, 갈등 프레임이 190건(31.1%)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도덕 프레임이 94건(15.4%), 자유 프레임이 65건(10.6%), 인간 흥미 프레임이 47건(7.7%), 외교 프레임이 4건(0.7%), 기타 프레임이 2건(0.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질서 옹호 프레임은 0건에 이었다.

<인민일보>는 법질서 옹호 프레임이 78건(7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교 프레임이 15건(13.6%), 도덕 프레임이 11건(10%), 경제 프레임이 6건(5.5%)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에서 갈등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민주 프레임, 자유 프레임, 기타 프레임은 모두 0건에 이었다.

<표 2> 한국, 중국, 홍콩 뉴스 프레임 비교 분석 결과:

(단위: 빈도, %, N=936)

	조선일보	한겨레	빈과일보	인민일보	Total
법질서 옹호	7 (10.2)	18 (11.6)	0 (0)	78 (70.9)	103 (11.2)
갈등	23 (40.0)	66 (42.6)	190 (31.2)	0 (0)	279 (29.8)
인간 흥미	2 (3.5)	8 (5.9)	47 (7.7)	0 (0)	57 (5.3)
민주	8 (13.3)	20 (12.9)	194 (31.8)	0 (0)	222 (23.7)
외교	2 (3.5)	17 (11)	4 (0.7)	15 (13.6)	38 (4.2)
경제	2 (3.5)	4 (2.7)	15 (2.5)	6 (5.5)	27 (2.9)
자유	4 (6.7)	7 (4.6)	65 (10.6)	0 (0)	76 (8.3)
도덕	12 (19.2)	15 (8.7)	94 (15.4)	11 (10.0)	132 (14.1)
기타	0 (0)	0 (0)	2 (0.2)	0 (0)	2 (0.2)
Total	60	155	611	110	936

	(100.0)	(100.0)	(100.0)	(100.0)	(100.0)
)
	$\chi^2=67.684, df=9, p< .000$				

한국 언론사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프레임을 비교 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주요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반송중' 사건에 대한 관련된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 프레임은 중국 내부 갈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과 홍콩의 갈등이 부각되는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콩 <빈과일보>와 중국<인민일보> 프레임을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표적인 <인민일보>는 이 사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위법 행위로 규정해서 법질서 옹호 프레임만 강조하는 반면에 홍콩의 대표적인 <빈과일보>는 자유와 사회적 갈등을 표현해서 민주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강조하였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2>는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 중국, 홍콩의 대표적 언론사가 사용한 정보원의 수를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와 같이 <조선일보>, <한겨레>, <빈과일보>, <인민일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67.684, df=9, p< .000$).

각 언론사 정보원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의 정보원은 한국 언론사가 24개(40%)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홍콩 언론사가 8개(12.8%)와 한국 사회단체가 7개(12.2%)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홍콩 사회단체가 4개(6.7%), 중국 정부가 2개(3.3%), 한국 정부가 2개(3.3%), 미국 정치인이 2개(3.3%), 한국 전문가가 2개(3.3%), 홍콩 전문가가 2개(3.3%), 홍콩 기업이 2개(3.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정치인이 1개(1.7%), 미국 전문가가 1개(1.7%), 중국 경찰이 1개(1.7%), 홍콩 경찰이 1개(1.7%), 기타 정보원이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콩 정치인, 중국 언론사, 한국 정치인 등은 0건에 이었다.

<한겨레>의 정보원은 한국 언론사가 38개(32.1%)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홍콩 언론사가 21개(13.5%), 한국 사회단체가 16개(9.8%), 한국 전문가가 15개(8.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중국 정부가 12개(6.7%), 홍콩 사회단체가 11개(5.8%), 한국 정부가 6개(3.2%), 홍콩 경찰이 6개(3.2%), 홍콩 정치인이 6개(3.2%), 미국 전문가가 6개(3.2%) 순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중국 정치인이 4개(2.6%), 홍콩 전문가가 3개(1.9%), 기타 정보원이 3개(1.9%), 중국 언론사가 2개(0.2%), 미국 정치인이 2개(0.2%), 한국 정치인이 2개(0.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찰과 홍콩 기업이 0건에 이었다.

<빈과일보>의 정보원은 홍콩 사회단체가 127개(20.8%)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홍콩 언론사가 120개(19.6%)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홍콩 전문가가 97개(15.9%), 홍콩 경찰이 84개(13.7%), 홍콩 정치인이 77개(12.6%), 홍콩 기업이 41개(6.7%), 미국 정치인이 33개(5.4%), 미국 전문가가 20개(3.3%), 기타 정보원이 6개(1.0%), 중국 정치인이 4개(0.7%), 중국 정부가 3개(0.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 한국 사회단체, 한국 정치인, 한국 전문가, 한국 언론사, 중국 경찰, 중국 언론사는 0건에 이었다.

한편, <인민일보>의 정보원은 중국 정부 63개(57.4%)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정치인이 13개(12.2%), 중국 언론사가 13개(11.4%), 홍콩 경찰이 10개(9.1%), 홍콩 정치인이 5개(4.5%), 홍콩 기업이 3개(2.7%), 중국 경찰이 1개(0.9%), 미국 정치인이 1개(0.9%), 미국 전문가가 1개(0.9%) 순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한국 정부, 한국 사회단체, 한국 정치인, 한국 전문가, 한국 언론사, 홍콩 사회단체, 홍콩 전문가, 홍콩 언론사, 기타 등 0건에 이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정보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에 <빈과일보>와 <인민일보>의 정보원은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제적 사건 보도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 언론가는 취재할 때 해외 정보원을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해외 정보원을 적극적 활용했던 이유는 자기 나라 사건이 아니라 해외 정보원을 통해 적극적인 내용이 취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하는 편향성이 높았다.

<표 3> 한국, 중국, 홍콩 정보원 수 분석 결과:

(단위: 빈도, %, N=936)

	조선일보	한겨레	빈과일보	인민일보	Total
한국 정부	2 (3.3)	6 (3.2)	0 (0)	0 (0)	8 (0.9)
중국 정부	2 (3.3)	12 (6.7)	2 (0.3)	63 (57.4)	79 (8.4)
한국 사회 단체	7 (11.7)	16 (9.8)	0 (0)	0 (0)	23 (2.5)
홍콩 사회 단체	4 (6.7)	11 (5.8)	127 (20.8)	0 (0)	142 (15.2)

중국 경찰	1 (1.7)	1 (0.6)	0 (0)	1 (0.9)	3 (0.3)
홍콩 경찰	1 (1.7)	6 (3.2)	84 (13.7)	10 (9.1)	101 (10.8)
한국 정치 인	0 (0)	2 (0.2)	0 (0)	0 (0)	2 (0.2)
중국정치 인	1 (1.7)	4 (2.6)	4 (0.7)	13 (12.2)	22 (2.4)
홍콩정치 인	0 (0)	6 (3.2)	77 (12.6)	5 (4.5)	88 (9.3)
미국정치 인	2 (3.3)	2 (1.3)	33 (5.4)	1 (0.9)	38 (4.1)
한국 전문 가	2 (3.3)	15 (8.9)	0 (0)	0 (0)	17 (1.8)
미국 전문 가	1 (1.7)	6 (3.2)	20 (3.3)	1 (0.9)	28 (3.0)
홍콩 전문 가	2 (3.3)	3 (1.9)	97 (15.9)	0 (0)	102 (10.9)
홍콩 기업	2 (3.3)	1 (0.6)	41 (6.7)	3 (2.7)	47 (5.0)
중국 언론 사	0 (0)	2 (1.3)	0 (0)	13 (11.4)	15 (1.5)
한국 언론 사	24 (40.0)	38 (32.1)	0 (0)	0 (0)	62 (6.7)
홍콩 언론 사	8 (13.3)	21 (13.5)	120 (19.6)	0 (0)	149 (15.9)
기타	1 (1.7)	3 (1.9)	6 (1.0)	0 (0)	10 (1.1)
Total	60 (100.0)	155 (100.0)	611 (100.0)	110 (100.0)	936 (100.0)
$\chi^2 = 67.684, df=9, p < .000$					

3.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3>는 어떤 동원 내용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동원 프레임은 <빈과일보>만을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제3국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고, 중국은 사회운동 관련된 보도가 없기 때문에 홍콩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빈과일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과일보> 경우는 611건 (100%) 뉴스에 다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갈등 프레임이 185건(3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자율 프레임이 128건(20.9%), 인권 프레임이 127건(20.8%), 차별 프레임이 99건(16.2%), 민주/자유 프레임이 7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홍콩 <빈과일보>의 동원 프레임 빈도:

(단위: 빈도, %, N=611)

	빈과일보
민주/자유	72 (11.8)
인권	127 (20.8)
차별	99 (16.2)
갈등	185 (30.3)

<빈과일보>는 갈등 프레임에 대한 동원 보도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탄사용, 진압 등 내용이 쏟아지면서 시민들에게 위기감을 불어넣었고, 시민들에게 강하게 선동했다. 또한, 홍콩 언론사가 자주 주권을 더 많이 강조하고 인권과 자율에 대해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1. 연구결과

이 연구는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를 한국, 중국, 홍콩의 언론이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정보원, 동원(mobilization) 프레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홍콩 중국의 주요 언론사의 <조선일보>, <한겨레>, <빈과일보>, <인민일보> 등 4개 언론사에 보도된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2019년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에 대한 한국, 중국, 홍콩의 대표적인 언론사의 내용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법질서 옹호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민주적인 프레임', '외교 프레임', '경제 프레임', '자유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기타 프레임' 등 9개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한국 진보와 보수 언론사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홍콩 언론사와 중국 언론사 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홍콩 <빈과일보>는 민주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제일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 <인민일보>는 법질서 옹호 프레임을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서 정부가 언론정책을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언론관을 고수하고 있다(이효성, 2009)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언론관은 중국 언론 조직들의 강력한 규범과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사별 '반송중' 사건에 대해 언론사 정치적 성향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비교

분석 결과 프레임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국의 두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에는 보도가 많지 않았다.

사회주의 저널리즘은 중국공산당 원칙을 견지하고 당에 대한 책임을 견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위법 행위로 규정해서 법질서 옹호 프레임만 강조하였다. 홍콩의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빈과일보>는 민주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가장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의 분석에서는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 중국, 홍콩의 대표적 언론사가 사용한 정보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 '중국 정부', '한국 사회단체/ 시민', '홍콩 사회단체/ 시민', '중국 경찰', '홍콩 경찰', '한국 정치인', '중국 정치인', '홍콩 정치인', '미국 정치인', '한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홍콩 전문가', '홍콩 기업', '중국 언론사/ 기자', '한국 언론사/ 기자', '홍콩 언론사/ 기자', '기타' 등 18개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언론사에서 홍콩 언론사, 홍콩 사회단체/시민, 홍콩 전문가, 홍콩 경찰, 중국 정부 순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언론사별로 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한국 언론사, 홍콩 언론사 홍콩 사회단체/시민 등 순으로 거의 비슷한 건수를 활용되었다. <빈과일보>는 홍콩 언론사와 홍콩 전문가, 홍콩 사회단체/시민 등을 주 대상으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정부에 대해 의존도가 높았다. 즉, 국제적 사건 보도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사는 취재할 때 해외 정보원을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해외 정보원을 적극 활용했던 이유는 자기 나라 사건이 아니라 해외 정보원을 통해 적극적인 내용이

취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하는 편향성이 높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반송중' 운동 참여에 대한 동원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경우 <빈과일보>만을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제3국의 입장에 관찰하고 있고, 중국은 사회운동 관련된 보도가 없기 때문이다. 동원 프레임은 '민주/자유 프레임', '인권 프레임', '차별 프레임', '정치적 갈등 프레임', '자율 프레임'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빈과일보> 갈등 프레임 가장 많이 보도하였으며, 인권과 차별 프레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 프레임이 185건(3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자율 프레임이 128건(20.9%), 인권 프레임이 127건(20.8%), 차별 프레임이 99건(16.2%), 민주/자유 프레임이 7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중국, 홍콩의 언론사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운동을 보도할 때, 서로 다른 뉴스 프레임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유세경, 김미라, 2002).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 사회운동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언론사와 홍콩과 중국 언론사의 뉴스 비교 분석이 기존 연구 엔트만(1993)의 주장한 프레임의 '선택'과 '현저성' 관점과 일치한다. 언론은 홍콩의 '반송중'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박태우, 2012). 언론사의 정치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정보원, 논조에서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중국과 홍콩의 정치적인 갈등 문제는 복잡하다. 이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 보도 내용이 차이가 있었다. 홍콩은 독립과 자율을 위해서 보도 내용이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인민일보>는 시위자가 위법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정상 생활과 사회의 정상 질서를 방해 등 내용이 많다. 반면에 <빈과일보>는 정부와 경찰 폭력진압, 언론 자유와 민주 자유 등 내용이 많다. 이는 같은 사건에 대해 한국, 중국, 홍콩 언론사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중국 문제, 특히 중국과 민감한 사건이 수용자에게 정보 전달, 인식, 태도와 행위 등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다.

셋째, 뉴스 프레임은 개인 신념과 사회적 목표에 대해 연결 작용을 한다. 일반 사람은 종종 사회 조직적 프레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성공할 수 있는지는 조직적 프레임 대중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빈과일보>에서 확인한 언론사의 동원 프레임은 홍콩에서의

사회운동이 방관자를 참여자로 돌아서게 하는 자발적 과정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동원 프레임 이론은 참여자, 잠재 참여자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인 사람들이 조직한 동원력과 보통 시민으로 구성된 피동적인 동원 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위 참여자가 갈수록 증가했다는 것은 언론에 사용된 동원 프레임이 대중의 참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운동에서 언론의 동원 프레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동원 프레임의 유형 분석은 <빈과일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동원 프레임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동원 프레임이 있는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했기 때문이다. 연구 시작 전 한국과 중국 언론사에서 동원 프레임이 등장하지 않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도 있다. 향후에는 홍콩 내 다른 언론사와 함께 비교해서 동원 프레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홍콩 사회운동의 가장 큰 정치적인 갈등 관계가 있어서 서구 언론사를 추가하고 비교연구를 고려하였는데, 이 부분 내용이 이 연구에서 부족해서 아쉽다. 이는 향후 언론 보도의 프레임 연구의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 연구는 홍콩 '반송중' 사회운동에 대해 9개월 동안 각 언론사에 게재된 보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3월부터 6월까지 보도 내용이 거의 없었던 점, 그리고 자료수집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다. 따라서 '반송중' 사회운동 사건이 종결된 시점에 종단적인 관련 보도를 관찰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권지현, 안차수 (2016). 중앙 일간지 4대강 사업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보수신문과 진보 신문의 칼럼 및 사설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 언론학보』, 3권 20호, 5-36.
- 김두식 (1998).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한국사회학보』, 나남, 213-256.
-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 김상숙 (2017).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적 노동운동-사회운동 노동 조합주의 관점에서 본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활동과 전망. 『민주주의와인권』, 17 권 2 호, 199-238.
- 김지혜 (2018). 한국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담론 분석-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8 권, 37-73.
- 김태원·정정주 (20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7 권 1 호, 199-224.
- 김수정·조은희 (2005). 성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49 권 6 호, 109-139.
- 김영욱·이현승·장유진·이혜진 (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12권 1호, 53-117.
- 김동춘 (2012). 사회 인문학의 대화 (4) :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공적

- 지식인: 그 구조적 특징과 변화 -김동춘 교수와의 대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0권, 299-345.
- 백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태우 (2012). 지역 갈등 이슈의 뉴스 프레임 구성에 대한 연구: 동남권 신공항 보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진욱 (2004).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 1960-1986년 한국 노동자 집단행동의 레퍼토리와 저항의 사이클.” 『한국사회학보』, 38권 6호, 219-250.
- 신진욱 (200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에서 도덕 감정의 역할: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분석. 『경제와사회』, 73권, 203-243.
- 송상근 (2016).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세월호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권 60호, 34-62.
- 서민혜, 반현 (2017). 청년실업 보도 프레임의 정부기간 별 통시적 비교 분석: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보』, 4권 32호, 101-1421.
- 설진아·남궁강 (2007). <6자 회담> 에 관한 텔레비전 외교 뉴스의 정보원 분석. 『한국방송학보』, 4 권 21 호, 69-100.
- 왕쯔웬·심준섭 (2015). 홍콩의 “우산운동” 갈등에 대한 중국과 홍콩 언론의 뉴스 프레임 분석. 『분쟁해결연구』, 3권 13호, 187-224.
- 임양준 (2009). 대선후보 보도사진에 대한 공정 보도 비교연구: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보』, 17권 2호, 31-63.

- 임양준 (2010).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 보도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 337-361.
- 임인재·나은영 (2018). 태풍 재난 보도 프레임과 구체적 감정의 차별적 영향: 유발된 슬픔과 분노의 매개 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63 권 3호, 33-68.
- 이현우·이병관 (2005). 갈등적 쟁점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 구성과 그것에 미치는 촉발사건의 영향-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287-304.
- 이동훈·김원용 (2012).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프레임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준용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사보』, 29호 85-142.
- 이준용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사보』, 17호, 100-135.
- 이효성 (2009). 포털 뉴스 규제가 인터넷 이용자 및 언론에 미치는 영향 - 개정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보』, 13권, 105-134.
- 양승현 (2016). 한국 사드 배치와 동아시아 여론 동향 분석한, 중 및 대만 홍콩 신문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2권, 261-292.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양문석 (2002). 수용자 스키마가 미디어 프레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우형진 (2006). 형식 파괴 뉴스 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프레임 분석: YTN <돌발영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191-218.
- 유세경·김미라 (2002).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테러' 뉴스 보도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8권, 15-198.
- 정정일 (2016).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제』, 16권 3호, 43-54.
- 조대엽 (1996). 한국 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정치적 기회구조. 『동북아연구』, 2권, 191-224.
- 조박·최낙진 (2018).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분석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7 권 2 호, 81-114.
- 한동섭·유승현 (2008). 일반논문: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연합보』, 8권 4호, 702-739.

[해외문헌]

- Benford, R. D., & Snow, D. A.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 Carragee, K. M., & Roefs, W. (2004). The neglect of power in recent fram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4*(2), 214-233.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urnham A, Thompson L (1996). Lay theories of heroin addic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3)*, 29-40.
- Perry, E. J. & Selden, M. (2000). *Introduction: Reform and resistance in Contemporary China, Chinese Society*. Change, Conflict and Resistance, Routledge Curzon London and New York, 7-8.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Vintage Books.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andermans, B.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In A. D. Morris & C. M.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pp.77-103).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elucci, A. (1995). The process of collective identity. In H. Johnston & B. Klandermans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pp.41-63).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an, Z, & Kosicki, Gerald,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Chaffee, S. H & Nass, C. I. & Yang, S. M. (1990). The Bridging Role of Television in Immigrant Political Socializ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7(2), 266 - 288,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90-109.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
- Snow, D. A. & Benford, R.A.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A. D. Morris & C. M.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pp.133-155).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now, D. A. (2007). Framing processes, ideology, and discursive fields. In D. A. Snow, S. A. Soule & H.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pp.380-412).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臧國仁 (1999). 新聞媒体与消息來源——媒介框架与真實建构之論述[M]. 台湾: 三民書局.

- 藏國仁 (1998). 新聞報道与真實建构：新聞框架理論的觀點[J]. 傳播研究集刊, 台北.
- 韓璟 (2013). 《中國青年報》關於“學雷鋒”活動報道的框架研究. 浙江大學研究生論文.
- 歐陽奇 (2015). 鄧小平“一國兩制”思想的對外傳播. 南通大學學報, (06),19-25.
- 羅世宏 (1994). 《后蔣經國時代的國家、大眾媒介与泛運動：國家認同議題的媒介框架分析》，碩士學位論文，台灣國立政治大學新聞研究所,第 31 頁.
- 袁銀傳，田亞 (2020). 論五四運動与中國社會發展道路的選擇. 武漢大學馬克思主義學院，浙江大學馬克思主義學院.
- 王雪 (2015). 民國時期國學研究与社会運動.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高艷芳 (2015). 台灣地區政治轉型下的社會運動分析.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于建嵘 (2008). 中國的社會泄憤事件与管治困境 [J] . 当代世界与社会主. (01),4-9.
- 邱宜儀，蘇麓 (2009). 新聞框架与社会運動框架：兩種研究視角的整合与對話 [J]. 南京社會科學, 135-142.
- 侯亞榕 (2016). 紙媒体中的報道框架——以《人民日報》和《南方都市報》對霧霾事件的報道為例. 西北大學.
- 董海軍 (2008). 論非政府組織与我國公共危机管理. 中共南昌市委党校學報.
- 蔡盈洲 (2014). 新媒体环境下突發性群体事件中謠言的傳播特征. 黑河學刊, 89-91.
- 劉春榮 (2014). 重构政府信任： 防控群体性事件的重要舉措[J]. 經營管理,

(24), 350-251.

孫楠 (2015). 人民网环境新聞報道框架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楊國斌 (2009). 悲情与戲謔：网络事件中的情感動員[J]. 傳播与社會學刊, (09), 39-66. 社會科學版.(1), 146-151.

叶海 (2012). 群体性事件應對中的政府角色[J]. 中國人民公安大學學報. 社會科學版.(1), 146-151.

潘曉凌·喬同舟 (2005). 新聞材料的選擇与建构：連戰“和平之旅”兩岸媒体報道比較研究.[J] 或者報紙[N]. 新聞与傳播研究, (04): 54-65.

新華网, (2011). 《“一國兩制”在香港特別行政區的實踐》白皮書.

鄧婕·程曉萱·蘇钥机 (2014). 報人、報業与香港社會變遷：《明報》、《信報》和《苹果日報》的个案探討[J]. 國際新聞界, (08)1-15.

趙鼎新 (2006). 《社會与政治運動講義》. 社會科學文獻出版, 1-31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ws frame of South Korea, Hong Kong, and China about the social movement of "Hong Kong anti-government protests" in Hong Kong in 2019

-China <People's daily>, Hong Kong<Apple Daily>, Korea <The Chosun Ilbo>, <The Hankyoreh>

JIAYANGDONGCUO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News stories are delivered to the audience through a specific point of view or perspective of the news media. Depending on this point of view or perspective, the news frame of the press will be different. In other words, different media outlets report on the same hot issue or specific cas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news,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other words, as the modern society is a competitive era, media companies are reinforcing various ideologies for reporting. In particular, the content

reported by the media in social movements is often observing changes in social life, and the contents are very dive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news of four representative cross-border media outlets (<The Chosun Ilbo>, <The Hankyoreh>, <Apple Daily>, <People's Daily>) about the 2019 Hong Kong 'bounce-on' social movement in Korea, China, and Hong Kong. I would like to compare and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rames.

Therefor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First, the difference in news frames of the four media companies.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4 media sources, the 3rd, 4 media companies' mobilization frames were compare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looked at the analysis of news frames between media companies. News frames are "Legal and Order Advocacy Frame", "Conflict Frame", "Human Interest Frame", "Democratic Frame", "Diplomatic Frame", "Economic Frame", "Free Frame", "Moral Frame", "Other Frame" It was divided into nine. As a result of that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media companies. Next, the conflict frame and moral frame were the most emphasized.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Hong Kong and Chinese media. In particular, Hong Kong <Apple Daily> emphasized the democratic frame and the conflict frame the most, while the Chinese <People's Daily> emphasized the legal order advocacy frame.

Second, it looked at the analysis of news sources among media companies. News Sources of information are "Korean Government",

"Chinese Government", "Korean Social Organization/Citizen", "Hong Kong Social Organization/Citizen", "Chinese Police", "Hong Kong Police", "Korean Politician", "Chinese Politician", "Hong Kong Politicians", "American Politicians", "Korean Experts", "Korean Experts", "American Experts", "Hong Kong Experts", "Hong Kong Enterprises", "Chinese Press/Reporters", "Korean Press/Reporters", "Hong Kong Press/It was divided into a total of 18" Reporters" and "Othe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People's Daily> is highly dependent on Chinese government sources. It was found that <Apple Daily> mainly covered the Hong Kong media, Hong Kong experts, and Hong Kong social groups. In the case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it was found that various sources were used because they covered incidents that occurred abroad.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o be because,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vering incidents abroad, democratic countries emphasize the diversity of information when reporting for article writing.

Third, the mobilization frame between media companies was analyzed only in <Apple Daily>. This is because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are observing from the standpoint of a third country, and <People's Daily> is against China and prohibits participation. It wa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Democracy/Freedom Frame", "Human Rights Frame", "Discrimination Frame", "Politics Conflict Frame", and "Autonomous Fram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inese government reported the most tyranny, and the frame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was also high.

To summarize the above, in this study, Korean, Chinese, and Hong Kong media companies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se of a social movement 'in transit'. As previously discussed, news frames, sources of information, mobilization frames among the four media companies were compared and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each country's ideology composition can be known by comparing and analyzing news frames on the same issue for each country.

Key words: News Frame, Social movement, Information sources, Political orientation , Mobilization frame

부록

코딩

1. 일련번호

2. 날짜

mm/ dd / yy

3. 매체

1 = 조선일보

2 = 한겨레

3 = 빈과일보

4 = 인민일보

4. 정보원

1) 한국 정부

2) 중국 정부

3) 한국 사회단체 / 시민

4) 홍콩 사회단체 / 시민

5) 중국 경찰

6) 홍콩 경찰

- 7) 중국 정치인
- 8) 한국 정치인
- 9) 홍콩 정치인
- 10) 미국 정치인
- 11) 한국 전문가
- 12) 미국 전문가
- 13) 중국 전문가
- 14) 홍콩 전문가
- 15) 홍콩 기업
- 16) 중국 언론사 / 기자
- 17) 한국 언론사 / 기자
- 18) 홍콩 언론사 / 기자
- 19) 기타

5. 주제적인 프레임

5-1 별집서 옹호 프레임 내용

- 1) 시위 행위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이성적이고 위법행위가 존재하였다
- 2) 시위자 위법행위로 인해 경찰과 시민이 다쳤다.
- 3) 중국 사법부는 법률 절차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입법 심사를 하였다.

5-2 갈등 프레임 내용

- 1) 홍콩 내부 건재파와 민주파간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 2) 중국 정부에 대한 시민이 이해가 부족해서 갈등이 존재하였다.
- 3) 시위자와 경찰 간의 갈등을 존재하였다.

5-3 인간 흥미 프레임 내용

- 1) '반송중' 사회운동은 단순한 현상이나 사실을 소개하고 정치적 문제를 결부하지 않는다.
- 2) 시민이나 시위자의 분노, 공감,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였다.

5-4 민주적인 프레임 내용

- 1) 다양한 의견과 행동을 존중하고 민주진영 의사 결정을 하였다.
- 2) 정부와 시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등적인 대화를 하였다.

5-5 외교 프레임 내용

- 1) 중국은 미국과 영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규탄하였다
- 2) 미국 국회의원들 <홍콩 인권과 민주 제안 법안> 제시하였다.

5-6 경제 프레임 내용

- 1) 홍콩 경제와 주식은 장기간 타격을 받고 경제 환경이 악화하였다.
- 2) 대형 브랜드 기업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당하게 되며 기업은 끝내 파산하였다.
- 3) 항공사 직원은 시위를 하게되며 시위로 인하여 비행기는 결항하게 되

며 항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5-7 자유 프레임 내용

- 1) 홍콩 민주진영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권을 요구하였다.
- 2) 시민이나 시위자는 자주권을 갖고 싶다.
- 3) 시위자들은 경찰부대의 해산을 요구하며 시위대의 행위를 "폭동"으로 정의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5-8 도덕성 프레임 내용

- 1) 시민, 정부, 시위자의 도덕적인 측면을 지적하였다.
- 2) 시위 행동은 일반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 3) 학교의 시위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에 영향을 미쳤다.

5-9 기타 프레임

- 1) 위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6. 동원 프레임

6-1 기사 내에 동원 프레임이 있는가?

- 1) 있다
- 2) 없다

6-2 민주/자유 프레임 내용

- 1) 시민의 자주권을 보호와 국민 안전 보장을 호소하다.
- 2) 홍콩 시민이 홍콩을 다스리고 민주적인 선거 실시를 요구하였다.
- 3) 민주 진영은 정부가 시민 언론 자유를 요구하였다.
- 4) 홍콩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3 인권 프레임 내용

- 1) 민주 진영은 미국이 홍콩 인권법 보호를 돕기 요청하였다.
- 2) 시민은 정부의 인권 반환을 요구하고 시민 기본적인 권력을 보장하였다.
- 3) 미국은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6-4 홍콩 차별 프레임 내용

- 1) 정부는 홍콩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여 홍콩 시민이 분열을 하였다.
- 2) 시민들 "일국양제" 정책에서 홍콩 사법 독립을 약화를 걱정하였다.

6-5 정치적 갈등 프레임 내용

- 1) 위법행위 정의를 철회하고 모든 시위자의 범죄 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 2) 경찰은 시위자나 시민을 충돌하고 다친 등 내용을 포함된다.
- 3) 경찰은 시위자 최루탄을 사용해서 공황을 만들었다.
- 4) 다친 시민들이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다.

6-6 자유프레임 내용

- 1) 홍콩 행정장관 퇴진을 지지하였다.
- 2) 홍콩의 정치와 법치 자주권을 요구하였다.
- 4) 정부에 법이 철회를 요구하였다.

항목	신뢰도	총 신뢰도	
법질서 옹호 프레임	0.85	0.85	
갈등 프레임	0.82		
인간 프레임	0.83		
민주 프레임	0.89		
외교 프레임	0.81		
경제 프레임	0.85		
자유 프레임	0.87		
도덕 프레임	0.85		
기타 프레임	1.00		
한국 정부	0.90		0.86
중국 정부	1.00		
한국 사회단체/시민	0.83		
홍콩 사회단체/시민	0.83		
중국 경찰	1.00		
홍콩 경찰	0.81		
한국 정치인	1.00		
중국 정치인	0.80		
홍콩 정치인	0.84		
미국 정치인	0.81		
한국 전문가	0.84		
미국 전문가	0.83		
홍콩 전문가	0.82		
홍콩 기업	0.84		
중국 언론사/기자	1.0		
한국 언론사/기자	0.82		
홍콩 언론사/기자	0.86		
기타 정보원	0.81		
참여 프레임	0.94	0.90	
민주/자유 프레임	0.86		
인권 프레임	0.89		
차별 프레임	0.88		
갈등 프레임	0.90		
자율 프레임	0.90		